

“환자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 혈액투석 환자 걸 지키는 김정화 원장

병원 문턱을 넘는 환자들에게 의사의 친절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배려는 때로 약보다 더 큰 힘이 된다. 의료가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을 보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혈액투석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보며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사동에서 내과를 운영하며 혈액투석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정화 원장(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김 원장의 선행을 기사화해 달라고 제보한 한 환자는 “요즘 병원에 가면 환자를 치료 대상보다 경제적 수단으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김 원장은 달랐다”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혈액투석을 시작한 지 3개월가량 된 이 환자는 투석 과정에서 여러 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고 털어놓았다. 투석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의식까지 잃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개인병원에서 응급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환자는 “투석을 하다가 혈압이 떨어지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위급했지만, 김 원장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 원장은 단순히 증상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를 정성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과거 사례와 관련 논문 등을 찾아며 원인을 분석했고, 투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환자의 설명이다.

환자는 “원장님이 직접 예전 사례와 논문 등을 찾아보면서 방법을 연구했고, 결국 내 상태를 정성적으로 되돌려 놓았다”며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그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그가 김 원장을 더욱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의료적인 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일상적인 순간까지 세심하게 살폈기 때문이다. 혈압이 떨어져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위험했던 어느 날에는 김 원장이 환자의 걸을 직접 지키며 부축해 화장실까지 동행했다고 밝혔다.



환자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화장실에서도 쓰러질 수 있고,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원장님이 환자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직접 붙잡아 주면서 끝까지 살피는 모습이 정말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아니어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나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하면서 힘든 순간마다 곁을 지켜줬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김 원장의 환자에 대한 배려는 특정 환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김정화 내과에는 상당수의 혈액투석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투석 과정과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80여 명의 투석 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호사들도 여러 명이 함께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간호사 등 의료진 모두가 환자들에게 상당히 친절하고 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혈액투석은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환자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치료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장시간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큼 환자들에게는 치료 자체뿐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심리적인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투석 환자들은 작은 혈압 변화나 신체 이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의료진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다.

김 원장의 헌신적인 의료 활동을 제보한 환자는 “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살아갈 이유가 많은데, 투석 중 혈압이 떨어질 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며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나를 살리려고 애써준 의사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장을 단순히 ‘친절한 의사’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두 때문에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

을 받았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술의 발전과 함께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자세 역시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첨단 의료장비와 새로운 치료법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변화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의료진의 마음이 참으로 치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김 원장의 사례가 주목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환자의 제보를 통해 알려진 김 원장의 모습은 화려한 수식이나 특별한 홍보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의사의 모습에 가깝다.

특히 혈액투석처럼 장기간 의료진과 환자가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분야에서는 의사의 실력과 함께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보자는 “병원은 결국 사람이 아픈 곳이고, 환자는 가장 힘든 순간에 병원을 찾는다”며 “그런 환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끝까지 살피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기사를 부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장에게 직접적인 보답을 할 수는 없지만,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는 것이 작은 감사의 표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거창한 말보다 환자가 위급한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행동에서 만들어진다.

오늘도 병원의 투석실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며 진료에 임하고 있는 김정화 원장. 그를 기억하는 한 환자의 말처럼,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각박해져 가는 의료 현실 속에서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강조하는 생명 존중과 환자를 위한 헌신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진료 현장에서 실천될 때,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 역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김 원장의 조용한 의료활동이 환자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만호기자



전주승화원, GA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전주승화원이 유족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도록 실내 공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공인받았다.

전주시청공단(이사장 이연상)은 전주승화원이 한국실내환경협회로부터 GA(Good Air)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GA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은 한국실내환경협회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이용 공간의 공기질과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시설을 인증하는 제도다.

전주승화원은 이번 인증 심사를 통해 유족 대기실, 실내 공기질 관리 및 환경 수준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족 대기실은 2024년 7월 실내 공기시스템을 갖추고 신축됐다.

승화원은 유족들이 대기실에서 쾌적하게 머물 수 있도록 시설 환경 관리에 집중해 왔다.

박만희 복지환경부장관은 “앞으로도 유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유족들이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승화원 운영에 민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 사매면, 경로당 현장 점검 나서

남원시 사매면 행정복지센터는 폭염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내 21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경로당 운영 여부 및 오후 10시까지 운영 안내 △여아연 정상 작동 및 냉방상태 확인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 사용을 자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어르신 건강상태 및 안부 확인 △충분한 수분 섭취와 폭염 행동요령 안내 △비상연락망 비치 여부 등이다.

특히 직원들은 경로당을 방문해 에어컨을 실제로 가동하며 냉방상태를 점검하고, 회장과 총무에게 무더위 시간대에는 냉방기를 적극 가동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지역 어려운 이웃 위한 ‘사랑의 선물 나눔’

한돈협회 · 진안마이산휴게소(익산방향) · 함께하는 사랑, 군에 선물꾸러미 기탁

한돈협회 진안군지부와 시카프 관광개발 주식회사 진안마이산휴게소(익산방향), 함께하는 사랑발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진안군은 지난 12일 한돈협회 진안군지부와 진안마이산휴게소, 함께하는 사랑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한돈협회 진안군지부는 42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400kg을, 진안마이산휴게소와 함께하는 사랑발, 단체에서 4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선물꾸러미를 각각 기탁했다.

사랑의 선물꾸러미에는 밥, 김, 장조림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이 담겼으며, 기탁된 돼지고기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돼 식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건강한 마음을 주고, 든든한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돈협회 전북도협회장을 비롯한 한돈협회 관계자와 진안마이산(익산 방향)휴게소 소장, 함께하는 사랑발 나눔기획본부장 및 전북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한돈협회 진안군지부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원 마이산진안휴게소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과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



이 되고자 이번 나눔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춘성 진안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귀한 돼지고기와 사랑의 선물꾸러미를 기탁해 주신 한돈협회 진안군지부, 진안마이산휴게소, 함께하는 사랑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정성껏 마련해 주신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프 관광개발 진안마이산휴게소(소장 김수진)는 수년 전부터 인근마을 어르신, 40여명에게 설, 어버이날, 삼복더위, 추석 명절 등 1년에 4~5회씩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 제공하며 효도를 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박미진 소방위

‘다정 소통관’에 지정돼

남원소방서는 박미진 소방위를 현장과 시민, 직원을 잇는 따뜻한 소통의 다리 역할을 수행할 ‘다정 소통관’에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다정 소통관으로 임명된 박미진 소방위는 약 15년간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 안전 교육, 언론 홍보 분야를 두루 거친 베테랑 소방관으로, 특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안전교육과 트렌드를 반영한 적극적인 소방 홍보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남원소방서에 새롭게 신설된 ‘다정 소통관’은 명칭처럼 다정하고 정감 있는 소통을 통해 소방 조직 내·외부의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직책이다.

박미진 소방위는 “다정소통관이라는 의미 있고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어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무겁다며, 지난 20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소방서와 시민 사이의 따뜻한 소통 창구가 되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남원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남원소방서는 “홍보와 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열정을 발휘해 온 박미진 소방위가 다정 소통관으로서 공공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소방 행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소방대원 3명에 ‘하트세이버’ 수여

무주소방서는 12일 오전 서장실에서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급 활동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소방대원 3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소생을 도운 소방장 송현아, 박순, 소방교 유하나 대원 등 총 3명이 영예의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영광의 주인공들은 2026년 1월부터 6월 사이 발생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심폐소생술(CPR)과 전문 응급처치를 시행해 멈춰선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적을 일궈내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독립유공자 유족들과 오찬 간담회

진안군이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유족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선열들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군은 지난 12일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5세대 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건국훈장 수훈자 강신홍·전영상 지사의 유족, △건국훈장 수훈자 정종업 지사의 유족, △대통령표창 수훈자 박창선 지사의 유족, △애족장 수훈자 최재희 지사의 유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열들이 걸어온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가족들이 기억하는 생전의 모습을 공유했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독립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광복 81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뜻이 후대에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유족 예우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 수가 정읍과 서주를 더욱 가깝게 잇는 우정의 다리가 됐다”며 “청소년들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값진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언어는 달라도 바둑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며 국제적인 우정을 쌓은 청소년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서주시와 체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넓혀 두 도시의 협력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6년 우정, 바둑판 위에서 새 수 놓다... 정읍 · 서주 청소년 교류

26년 동안 우정을 이어온 정읍시와 중국 서주시가 청소년 바둑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협력의 폭을 넓혔다.

시는 12일 정읍시 정보화교육장과 중국 서주시 현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2026 정읍시-서주시 우형배 청소년 바둑 교류전을 열었다.

대회에는 두 도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기사 16명이 참가했다. 정읍과 서주에서 각각 8명이 출전해 상·하반 두 차례 대국을 펼치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경기 결과에 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우수상과 전승상을 수여했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는 투훈상을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승패를 넘어 서로를 격려하며 바둑으로 맺은 우정이라는 우형배의 뜻을 되새겼다.

정읍시와 서주시는 26년간 문화와 예술, 체육,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대회는 두 도시의 협력 범위를 청소년 교류까지 넓히고, 자매도시 관계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규 정읍시체육회장은 “온라인 바둑판에 놓인 한 수